

[1] 인간의 본성 자체는 이 두 연령층, 즉 노인들과 어린이들에게 대하여 동정심을 가지게 마련이지만, 그렇더라도 규칙의 권위로서 그들을 뒷받침해야 한다. [2] 그들의 허약함을 늘 고려하여 음식에 대한 엄격한 규율을 그들에게는 적용하지 말고, [3] 너그러운 배려를 하고 규정된 시간 전에 (식사를 하도록) 할 것이다.